

서운영의 '집과 사람'



다문화 사회에 따른 모자이크 도시

얼마 전 서울 인근의 시화호에서 토막 난 시체가 떠올랐다. 남편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특히 그 범인이 중국동포라는 사실에 전국민이 경악했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특정지역에 대한 편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도시가 발달하여 비대해지면 그 도시의 순일성이 사라지고 지역별로 조금씩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례로 서울은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는데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뿐 아니라, 소득 수준의 차이와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서울이 더욱 비대해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정지역, 주로 직장이 가까운 공장지대 혹은 집값이 저렴한 동네에서 국적이나 인종별로 모여 사는 경향이 강하다. 그 중에 서울의 서남부 일대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살아서 그곳에 가면 상점마다 중국어 간판이 나뉘어 있고 거리에는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의 여느 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 중국동포가 많아지면서 어느 새 한국인이 이방인이

된 느낌마저 든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이 이질화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살던 한국인들이 점차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 이질화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어느 도시의 특정지역이 집값이 저렴할 편이라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치자. 거기에는 공장이 몇 군데 있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러자 원래 살던 한국인들은 서서히 그곳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에 집값은 더욱 하락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리게 되었다.

이제 그곳은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비율이 더 많고, 한국인은 노인가구를 비롯하여 더 이상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만이 사는 동네가 되면서 이미지가 더러워 나빠지게 된다. 이른바 섬처럼 고립된 특화지역이 되었고, 한국이면서 한국 아닌 현상이 도시 곳곳에 퍼질 때 그 도시는 다핵구조의 모자이크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구조는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에서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차이나타운, 리틀도쿄, 무슬림 거주지, 게토(유대인 거주지), 할렘가 등으로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인종적 혹은 문화, 종교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미국 대도시에서 흑백간의 주거 분리는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 여기에는 10%의 법칙이 있다. 중산층 백인 거주지라고 알려진 어느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유색인종의 전문직 종사자가 새롭게 이주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일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다가 점차 유색인종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록 전문직, 중산계층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백인 거주자들은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

대개 유색인종이 전체 가구 중에서 10%를 차지하게 되면 기존의 백인들이 떠나면서 그곳은 집값이 하락하여 점차 유색인종화 되는 것이다. 경제적 수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내 이웃에 유색인종이 사는 것이 싫어 이사를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인종적 특화와 격리는 기존의 계층별 분리보다 훨씬 더 가시적이고 고착적이다. 부모는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 공장 근처의 동네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전문직 종사자가 되어 중산층 거주지 이사를 나갈 수가 있다. 이는 20세기 한국과 같이 인종적 순일성이 강하고 계층별 상향 이동이 용이했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여

특정 인종집단이 몰려 살게 되면 그에 따른 혐오감과 편견도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특정지역의 자녀가 전문직으로 진출하여 주류사회에 편입했다 하더라도 주거지는 중산층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한 채 여전히 기존의 거주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인종적 분리가 계층적 분리보다 훨씬 더 가시적이고 고착적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 맹아가 보이고 있다.

서울의 특정지역이 중국동포들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지면서 일종의 낙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고,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곳곳이 특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섀터민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같은 민족이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이들이 특정 주거지역에 몰려 살기 시작한다면 또 하나의 이질화된 지역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주거지 불평등의 문제는 주로 경제적 계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건축칼럼니스트>

기고

광주가 앞장서는 '녹색' 도시농업



임 내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을

선학교에 상자텃밭 등을 지원하려고 추진 중이다.

도시농업은 광주시 차원 뿐만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운동의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다. 2015년 4월 11일은 도시농업인의 날로, 전국 도시농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날 광주도시농업포럼이 광주시를 대표해서 참석했다.

광주도시농업포럼은 도시에 녹색공간을 되찾아 주자는 시민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옥상에 가족단위의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잡초지를 일구어 텃밭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광주천변에 무성한 풀밭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주민들에게 3평씩 제공해 자기 이름으로 가꾸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렸을 적 농사를 경험해봤던 베이비붐 세대 시민이 아니라 어린 세대들까지도 땅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등 도시농업이 시민차원에서 확산하고 있다.

광주 북구에는 한세봉 개구리논이 있는데, 도로개설 계획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

에 처했던 한세봉을 지키기 위한 주민모임에서 시작돼 현재는 주민들에 의해 유기농으로 경작되고 있는 논이다. 개구리논을 우선해 알게 된 노도 2011년 봄부터 모내기와 풀베기, 수확 등에 참여해오고 있다.

모내기하는 날은 회원들에게 무척 설레는 날이었는데, 모내기 이후에도 농약도 하지 않고 손으로 풀을 뽑고 가꾸었다. 이처럼 회원들, 아이들과 논에서 모내기 등을 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귀한 '인성교육'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딱딱한 도시생활에 위트가 되는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농업은 이밖에 도시의 열섬화를 예방하고,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해 먹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류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도시는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페루 마추픽추의 테라스형 논지, 프랑스 베르사유 궁의 왕비 텃밭, 서울 잠실과 잠원동에서의 양잠, 궁중에 채소를 공급하던 내농포가 있던 충로 권농동, 왕실 고추 재배 포장이 있었던 연희동 등의 사례를 보

더라도 도시에서 다양한 농업이 활발하게 전개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며 도시에서 농업이 분리되었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에서 인구가 급증하고 고층빌딩과 포장도로가 증가하며 녹지가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양한 환경오염과 도시민의 고립, 정서적 불안 등의 사회문제까지 이어졌다.

2009년 3월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의 잔디를 걷어내고 텃밭을 일구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이후 녹지를 확대하고, 농사를 즐기려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 세계 도시농부는 8억명 이상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8195곳의 텃밭이 있고 미국 뉴욕에는 옥상 텃밭이 있는 빌딩만 600개 이상 있다고 한다. 도시텃밭 가꾸기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국회에도 도시텃밭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매우 수요일마다 '생생텃밭'에 가시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 가을에는 감자와 상추 등을 수확할 예정이다. 도시농업 텃밭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날까지 '생생텃밭'을 잘 가꾸어 볼 생각이다.

종교칼럼

두 개의 장면, 그리고 진아(眞我)



원 광 나주 원각사 주지

한 장이 전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의 독일인은 바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였습니다. 독일 총리 최초로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횡포를 가장 뼈저리게 겪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 유대인 학살의 상징적 장소인 '게토 기념비'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은 전히 예고된 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그 소식은 사진과 함께 전세계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아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한 일본인의 모습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취임 1주년인 2013년 12월26일 아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아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입니다. 일본은 1946년 극동 국제군 사재판(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분류된 이들 중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사형수 7명과 옥중 병사자 7명 등 14명을 '쇼와 순난자'로 추어올리며 1978년 10월 아스쿠니신사에 몰래 합사 하였

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주축들이 보여준 상반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독일의 학교에서는 지금도 수업 시작 전에 3분간 묵념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실수를 대신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실수를 교과서에서 그대로 수록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개선과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단된 조국의 통일까지도 이루어내었습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 진아(眞我)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열반의 경지에 이른 진실한 자아(自我)' 또는 '부처님의 성품을 깨달아 그것을 유지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본원적인 자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금의 수많은 승려들이 열심히 참선하고 정진하며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아라고 하겠지요. 진아를 깨닫는다면 해탈의 경지가 눈 앞에 펼쳐진다고 하니 선승(禪僧)들이 찾고자 하는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아는 쉽게 나타나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대로 각고(刻苦)의 노력과 정진이 선행되어야만 겨우 실마리 한 가닥을 얻을 뿐이나, 꼭 가야만 하는 목적지가 있고 그곳에 이르는 길이 험난하고 긴 여정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같은 허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노력도 진아에 다다르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두 사람의 서로 상반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진리에 다가가는 올바른 길인지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자신의 허물을 직시하여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그저 덮고 가리려만 하는 모습, 둘 중의 어떤 모습이 진리에 다가가는 올바른 길일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社說

정부, '진도의 눈물' 더 이상 외면 안 된다

세월호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진도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직도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릴 채 여전히 기존의 거주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인종적 분리가 계층적 분리보다 훨씬 더 가시적이고 고착적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 맹아가 보이고 있다.

서울의 특정지역이 중국동포들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지면서 일종의 낙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고,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곳곳이 특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섀터민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같은 민족이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이들이 특정 주거지역에 몰려 살기 시작한다면 또 하나의 이질화된 지역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주거지 불평등의 문제는 주로 경제적 계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건축칼럼니스트>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연착륙하려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15일부터 이를 동안 정해속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 문상필 의원은 장 내정자 남편이 현 광주시장과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사건 내정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해 시장 선거 당시 장 내정자의 시장 찬조 발언을 문제 삼았고 여성재단 조직개편과 여성발전센터의 비전 등에 관해 질문 공세를 폈다. 자질이나 도덕성을 꼼꼼하게 따져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비록 이번 청문회가 두 번째로,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구체적인 활약이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난해 말 열린 첫 청문회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를 부적격으로 판정,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에도 청문회 취지를 한껏 살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될 것 같다.

후부터 6월까지 생업을 제쳐 놓고 인명 구조와 수색작업 등 사고 수습에 앞장서며 혼신의 지원을 해왔다. 어민들은 세월호에서 기름이 유출돼 양식장 미역과 전복 등 수산물 수확을 포기해야 했다. 관광객마저 찾지 않아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해 냉기습만 알아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입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방침인데다 단기간 급전 보상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이제 진도 주민들의 눈물 어린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 또한 입증자료만 요구할 게 아니라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제시한 피해 수치를 토대로 보상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청문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직무 능력 검증이 우선임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의원들이 내정자를 평가할 만한 실력을 쌓아야 한다. 현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 조언을 받고 있지만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과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본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당리당락에 휘말려 무조건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수준 낮은 자세로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청문회 후 '적격과 부적격'이라는 용어를 보고서에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도 실용성 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 청문회의 갈 길은 멀다. 하지만 순기능의 싹을 더욱 키워 나가야 한다. 노출된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無等鼓

사진 속 그녀는 자기가 웃고 있었다. '세상에 따뜻했던 그녀를 떠나보내며' 문구가 예뻐하다. 신은정(1972~2012) 감독의 장례식장. 영정 사진의 그녀에게선 마지막 인터뷰 때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첫 인터뷰 때의 씩씩하고 당당함과 더불어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따뜻함이 함께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베리타스 : 하버드 그들만의 진실'의 뉴욕국제독립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감독상 수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들떠 보였다. 조

바심, 회의, 무작정 앞으로만 달리는 데 대한 확신 없음 등에 대해 이번 조금씩 답이 보인다고 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정말 행복해보였다. 그때 그 모습이 영정 사진 속에 있었다. 더 슬픈 눈을 하고 있지만, 며칠 전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45년 역사의 쌍광스튜디오를 취재했다. 인상에 남았던 건 부모님 영정 사진 이야기였다. 온 가족이 기념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앞에 걸린 부모님 영정 사진을 '몰래' 찍고 간 가족 이야기, 가족 사진과 함께 건네 받은 사진을 받고 평평 울

영정 사진

던 딸 이야기. 아직도 "내가 왜 이런 사진을 찍어야 하나"며 속상해 하는 노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가끔 딸들이 부모님의 요청으로 함께 영정 사진을 찍으러 오는 경우가 있었다. 첫 인터뷰 때의 씩씩하고 당당함과 더불어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따뜻함이 함께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베리타스 : 하버드 그들만의 진실'의 뉴욕국제독립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감독상 수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들떠 보였다. 조

바심, 회의, 무작정 앞으로만 달리는 데 대한 확신 없음 등에 대해 이번 조금씩 답이 보인다고 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정말 행복해보였다. 그때 그 모습이 영정 사진 속에 있었다. 더 슬픈 눈을 하고 있지만, 며칠 전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45년 역사의 쌍광스튜디오를 취재했다. 인상에 남았던 건 부모님 영정 사진 이야기였다. 온 가족이 기념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앞에 걸린 부모님 영정 사진을 '몰래' 찍고 간 가족 이야기, 가족 사진과 함께 건네 받은 사진을 받고 평평 울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9195)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96 | 광고매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치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사 회 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3 |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